

지루한 조정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 증시는 비교적 밝을 것으로 전망됐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증권사들은 올 하반기 증시가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기업 실적 악화 우려 등으로 3·4분기까지 조정을 거쳐 4·4분기에 완만한 속도로 반등할 것이라며 코스피지수는 1,130~1,150선에서 최대 1,65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 "증시 4·4분기에 반등" = 우리투자, 현대, UBS 등 대다수 증권사들이 연말 목표 지수대를 1,500선으로 제시한 가운데 대우증권과 삼성증권은 하반기 지수밴드의 상한선을 각각 1,650선, 1,580선으로 잡았다.

다만 대신증권은 지수가 3·4분기 중 1,150선을 저점으로 해 3·4분기 말부터 반등, 연말에 1,430선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고 CLS증권은 올 하반기 지수 전망치를 종전보다 소폭 낮아진 1,100~1,380선을 제시했다.

동양증권증권은 "기술적 지표상 단기 매도 정점을 통과한 데다 미 금리인상 종결 가능성,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기대감으로 올 하반기 증시는 기술

적 반등 내지는 안도 랠리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 "하반기 기업실적 개선 등 호재" = 증권사들은 올 하반기 증시 반등을 이끌 호재로 ▲주가 급락에 따른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기업 실적 개선 ▲인플레이션 우려 감소 ▲기관투자자의 매수 기반 확대 가능성 등을 꼽았다.

서서히 성장세 회복

반면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와 부동산 및 금리 인상 등 정책 불확실성은

하반기 증시 전망

3분기 조정 · 4분기 반등 '전약후강'

코스피 지수 최대 1,650까지 상승

낙폭과대 우량주 중심으로 매수률

낙관적인 시각도 있으나 대체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류를 이뤘다.

양경식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세계 경제는 올 하반기부터 성장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며 "미국은 3·4분기에 금리인상을 종료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경제는 과열조정이 진전되지 않아 추가 긴축정책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현대증권은 "금통세를 보이던 원자재 가격의 급락으로 원자재 수출국의 회복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황창중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국내 경제성장률은 고용회복에 따른 소비 회복으로 2·4분기를 저점으로 다시 성장세로 복귀할 것"이라며 "설비투자 수요도 확대되면 내수의 선순환 구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에 대해선 일부

낙시마비 UBS 아시아 주식 수석 전략가는 "현재는 6~12개월을 대비한 좋은 매수 기회"라며 "약세장(bear market)의 시작이 아닌 매수 시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금융·조선·통신 유망

대신증권은 3·4분기 중 코스피지수 1,150선 전후에서 통신서비스, 보험,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의 우량주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라고 권했다.

김학주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투자전략상으로 3·4분기와 4·4분기에 각각 낙폭과대 가치주, 성장주의 비중을 확대하라"며 "금융, 조선, 통신 등이 유망하며 4·4분기부터는 IT 투자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정필수기자 bungju@kwangju.co.kr

자녀 키우는 근로자가구

44%가 무주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근로자가구 중 절반 가까운 수가 무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비와 주거비라는 이중부담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구가 많다는 예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정부가 오는 2008년 첫 지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시안을 마련하면서 근로자가구의 부양아동, 주택소유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5일 밝혔다.

분석 결과 지난 2004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가구는 총 857만 가구였고, 이중 18세 미만 부양아동이 없는 가구가 471만 가구(55%), 18세 미만 부양아동이 있는 가구가 386만 가구(45%)로 나타났다.

또 자녀를 둔 386만 근로자가구 가운데 무주택 가구는 170만 가구였고, 이중 73만 가구는 자녀를 1명, 97만 가구는 2자녀 이상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녀를 둔 근로자가구의 44%가 자신 소유의 주택이 없고, 25%는 자녀도 둘 이상 키우고 있는 처지다.

주택을 보유한 나머지 216만 가구 중에는 186만 가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둔 전체 근로자가구 중 25.6%인 99만 가구는 연간소득이 면세점 수준인 1천700만원을 넘지않았다.

아이를 키우는 무주택 근로자가구로서 최근 몇년간 진행된 집값 상승과 갈수록 늘어만 가는 교육비라는 이중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셈이다. /연합뉴스

서비스산업 육성해야 선진국으로 도약한다

전경련 '고용확대 방안' 보고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적했다.

전경련은 25일 내놓은 '서비스산업 성장을 통한 고용확대 방안' 보고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을 소득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분류했을 때 우리나라는 계속 4그룹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상위그룹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견인차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민소득 증대, 산업구조 고도화, 인구 고령화 등으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의 취업유발계수도 제조업의 1.6배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우 OECD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부가가치 창출이나 고용 기여 면에서 특별히 비교우위를 가진 업종이 없고 서비스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음식·숙박·도소매업의 경우 고용 기여율은 높지만 부가가치 생산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고 운송·보관·통신 등 제조업 연계 서비스업종의 부가가치 생산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기여 정도는 낮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내 부가가치 중 농산업 11% 차지

서울대 농업개발연구소

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중 농림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불과하지만 비료·농자재·식품가공·유통·외식 등 전후방 연관산업을 포괄한 농산업의 비중은 11.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림부는 서울대 농업개발연구소에 의뢰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등을 활용해 전체 농산업의 부가가치를 추산한 결과, 지난 2004년 76조2천550억원으로 국내 순부가가치의 11.0%를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산업 종사자수는 381만명으로 총취업자의 16.9% 수준이었다. 순수 농림업

만 보면 부가가치는 24조4천350억원으로 3.5%를 차지하고 종사자수는 175만명으로 7.8% 수준이지만 전후방 연관산업을 포함하면 부가가치가 51조8천200억원(7.5%), 종사자수가 206만명(9.1%)에 달하기 때문이다.

1991년의 경우 농림업 부가가치 비중은 6.8%였고 농산업은 17.0%였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산업 전체의 부가가치를 추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면서 "미국이나 일본 등은 이미 농업뿐 아니라 전체 농수산업의 연관 산업까지 부가가치 등을 추산,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경제체험 사진퍼즐

청소년경제체험센터가 22일 서울 서교동에 문을 열었다. 참석자들이 사진퍼즐을 맞춰보며 경제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호산업 점경사 '행복한 6월'

금호산업 건설부문이 최근 잇따른 점경사로 '행복한 6월'을 맞고 있다.

25일 금호산업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정부 등 주요 기관이 주는 굵직한 상을 휩쓸었다. 대우건설 인수까지 사실상 확정하면서 회사는 물론 그룹 전체 분위까지 그 어느 때보다 밝아졌다.

금호산업이 이달에 받은 상은 모두 3개. 지난 13일 8년 연속 환경 무사고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환경경영대상을 받았고, 19일 신혼 부회장이 산업계 최고의 상인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이어 20일에는 한국능률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생산성대상의 중

대우건설 인수에

정부 등 주요기관

굵직한 상 휩쓸어

합대상을 따냈다.

신혼 부회장은 2002년 경영난에 처한 금호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해 공적자금 투입없이 단기간에 회사를 정상을 되찾았고, 금호산업의 시공능력 평가 순위 17위에서 9위로 끌어올린 탁월한 경영능력을 인정받아 상을 탔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생산성대상

종합대상은 민간 컨설팅회사가 주는 상이지만 건설분야에서 최초로 받은 것이다.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졌다. 회사 관계자는 "그룹이 더 가벼워 일이지만 금호산업 직원들도 대우건설을 한 식구로 맞게 돼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계도 금호산업의 경사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A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 인수후 금호산업이 업계의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올 에너지 수요 전망치 하향

고유가 현상 등 '위축'

연초 예측보다 0.5%p

올해 국내 에너지 소비가 고유가 현상 등으로 인해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25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 수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내 에너지 총수요는 작년보다 2.7% 증가한 2억3천560만TOE(석유환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연구원이 지난 2월 전망한 올해 에너지 총수요 증가율 3.2%에 비해 0.5%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이며, 지난해 에너지 총수요 증가율 4.1%에 비해서는 1.4%포인트 낮은 것이다.

최종 소비단계의 최종에너지 수요도 작년보다 2.0% 증가한 1억7천570만 TOE로 예상돼 2월에 예상했던 증가율 2.2%보다 낮아졌다.

이같이 에너지 수요전망이 하향조정

된 것은 고유가로 올해 들어 실제 에너지 소비가 예상보다 증가폭이 둔화되면서 나타난 것이다.

1~2월 총에너지 소비는 4천170만 TOE로 작년 동기보다 2.2% 증가하는데 그치고 이 기간 최종에너지 소비도 2.4% 늘어나는데 머물렀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최도영 연구위원은 "1, 2월 에너지 소비실적치가 당초 예상보다 증가율이 낮아졌고 국제유가도 당초 전망보다 많이 올라가 에너지 수요 전망치를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에너지총수요 전망을 에너지원별로 보면 석유수요는 7억6천110만 배럴로 작년(7억6천140만배럴)과 비슷하고 원자력은 1.4%, LNG는 8.9%, 석탄은 4.6%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종에너지 수요를 부문별로 보면 수송용이 작년보다 3.1%, 산업용이 2.2% 늘어나고 가정·상업용은 0.8%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186회)

Table with columns for drawing numbers (04, 10, 14, 19, 21, 45, 09) and prize amounts for various match levels (1st to 5th).

팝콘복권 (제9회)

Table with columns for ranking (1st to 7th), prize amount, and drawing numbers.

함께 일합시다



Table listing job openings with columns for company name, position, qualifications, salary, application date, and contact info.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장애인 면세차 상속때 특소세 면제

재정경제부는 25일 장애인 면세차량을 구입한 뒤 5년 이내 사망해 이 차를 상속할 경우 자동차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외국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도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